

개도국 공무원 교육연수의 효과와 시사점

사공호상(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소장)

송효진(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연구원)

- 글로벌개발협력센터(GDPC)에서는 우리나라의 국토발전 경험을 공유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가의 공무원을 초청하여 교육연수를 실시하고 있음
 - 2011년에는 5차례의 교육연수를 시행하였으며, 이를 통하여 22개 개발도상국가 공무원 56명이 교육과정을 수료
 - * GDPC: Global Development Partnership Center
- G20 정상회의 개최와 ODA예산 규모 증대 등을 계기로 개도국 공무원 교육연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효과성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는 없었음
 - 교육연수의 효과성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피드백(feedback)하여 교육연수사업 발전을 도모할 필요
- GDPC의 2011년 교육연수과정을 수료하고 업무에 복귀한 연수생을 대상으로 교육연수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, 업무 및 개인 발전 기여도가 매우 높음

| 정 | 책 | 적 | 시 | 사 | 점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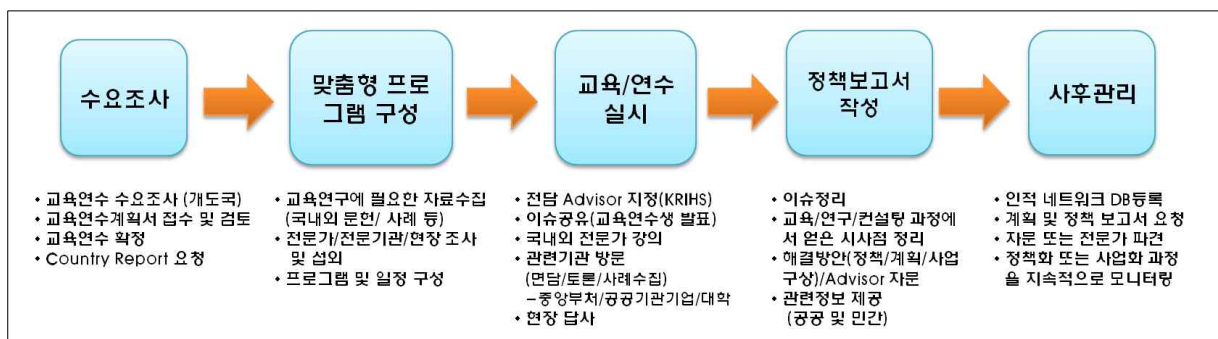
- 1 교육연수의 효과는 소속기관 발전 > 국가정책 반영 > 개인적 계발의 순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음
- 2 한국의 개발경험 및 정책(한국모형)을 개도국에 실현할 경우, 시행 가능성(91%)이 매우 높고 적합한(92%) 것으로 응답함
- 3 교육과정의 구성별 학습효과는 산업시찰 > 강의 > 정책보고서 작성 > 한국문화체험 순으로 높게 나타남

1. 교육연수 특징 및 현황

● 기본방향

- 교육연수(Training)가 연구(Research), 컨설팅(Consulting)과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
 - 맞춤형 자문 프로그램(자기주도형 교육)과 현장 Training · Research · Consulting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운영
-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는 교육연수 실시
 - (맞춤형) 수원국에서 원하는 경제, 계획, 사업의 해답(Solution)을 자기주도형으로 얻고, 이를 ODA사업과 연계하는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
 - (한국형) 우리나라가 축적하고 있는 국토개발 관련 지식, 경험, 노하우, 개발모델을 개발도상국에 전수하는 한편, 녹색성장 및 한류문화 등을 홍보
 - (감동형) 수원국의 사정을 이해하고 우리가 도움을 받던 때를 생각하여 진정어린 몸과 마음으로 교육연수 실시
 - (차별화) KOICA 국내초청 연수사업 등 기존 교육프로그램과 차별화된 장기(6주) 연구 연수 개발 · 실시
- 교육연수 기간은 기본적으로 6주 · 4주간 중견과정과 2 · 3주간 고급과정으로 나누어 운영
 - 중견과정은 글로벌개발협력센터(GDPC)가 기획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발굴형 프로그램
 - 고급과정은 한국국제협력단과 해외건설주재관 등에게 위탁 · 제안 받아 수행하는 위탁형 프로그램

[그림 1] GDPC 맞춤형 교육연수 프로그램



● 2011년 교육·연수 시행 현황

- 6주 과정 2회를 포함하여 모두 5차례의 교육연수를 실시하였으며, 24개국의 연수생 56명이 교육과정을 수료함

- (아시아 국가) 네팔, 라오스, 말레이시아, 몽골, 베트남, 브루나이, 부탄, 요르단, 우즈베키스탄, 카자흐스탄, 인도네시아, 캄보디아, 태국, 필리핀
- (라틴아메리카) 과테말라, 브라질, 에콰도르, 엘살바도르, 우루과이, 콜롬비아
- (아프리카) 모로코, 우간다, 짐바브웨, 케냐

2. 교육연수의 효과성 조사·분석

● 조사개요

- 교육연수의 효과 제고, 교육의 질 향상, 교육과정 개선 등을 위하여 2011년 상반기 3개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업무에 복귀한 개도국 17개 국가 연수생 3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(총 21명 응답)

- 대상국가: 과테말라(1), 네팔(2), 라오스(1), 모로코(1), 몽골(5), 베트남(6), 부탄(1), 에콰도르(2), 요르단(1), 우간다(1), 우즈베키스탄(2), 인도네시아(2), 짐바브웨(2), 카자흐스탄(3), 캄보디아(2), 케냐(1), 타이(1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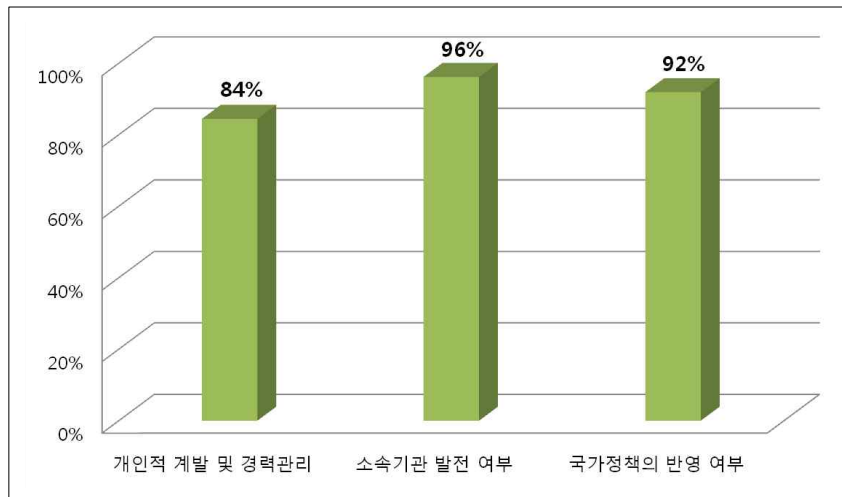
- 조사내용은 교육과정을 이수한 연수생의 개인적 계발 및 경력관리, 소속기관 발전 여부, 국가정책의 반영 여부, 교육과정 항목별 교육효과로 구성함

- (개인적 계발 및 경력관리) 교육과정을 통한 전문성 제고, 업무 기여도 여부, 개인 역량 강화 및 경력관리의 내용으로 구성
- (소속기관 발전 여부) 연수생 기관의 교육 파견 필요성, 한국적 사례를 통한 기관의 장기 발전과 전략수립 기여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
- (국가정책 반영 여부) 한국 국토개발 사례의 개발도상국가 국토계획·정책 및 시행 가능성, 개발도상국에 한국적 개발 사례의 적합성 내용으로 구성
- (교육과정 항목별 교육효과) 강의, 당일 현장학습, 산업시찰, 어드바이저 제도, 민간 기업 교육실습, 정책보고서 작성, 세미나 및 워크숍, 한국문화 체험으로 구성

● 교육연수의 효과성(설문조사 결과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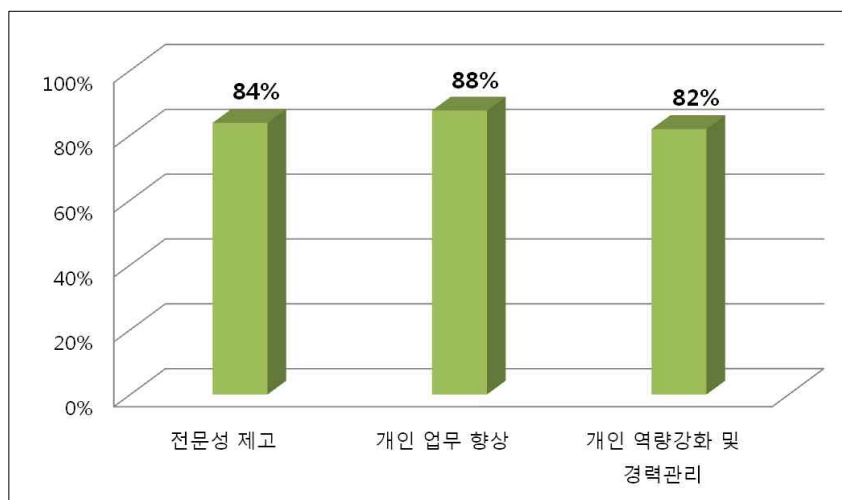
- 교육연수의 효과는 전체적으로 소속기관 발전 > 국가정책의 반영 > 개인적 계발의 순으로 크게 나타나, 조직과 국가의 발전에 대한 기여가 개인의 계발보다 우선함

【그림 2】 GDPC 교육연수 과정의 효과성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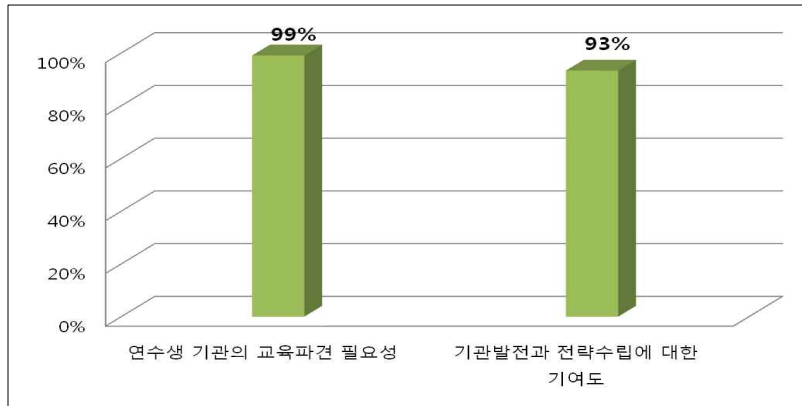
- 교육연수를 통한 개인적 계발 및 경력관리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84%로 나타났으며, 개인 업무 향상(88%), 전문성 제고(84%), 개인 역량강화 및 경력관리(82%) 순으로 크게 나타남

【그림 3】 개인적 계발 및 경력관리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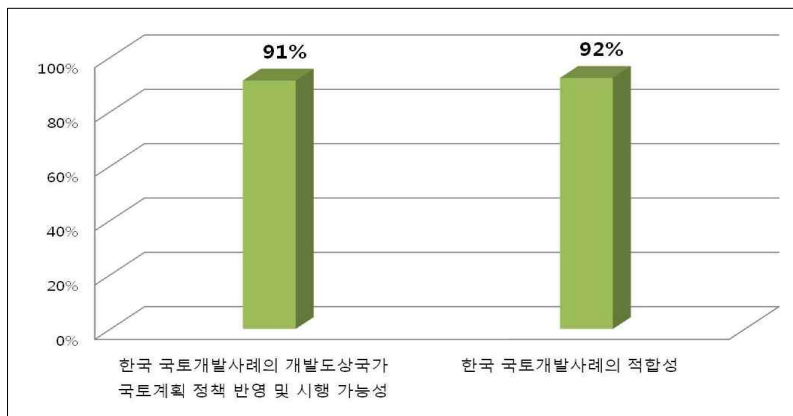
- 중앙부처, 지방정부 등 소속기관의 발전과 전략 수립 시 교육연수에서 배운 경험 이 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으며, 지속적인 교육연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

[그림 4] 소속기관 발전 여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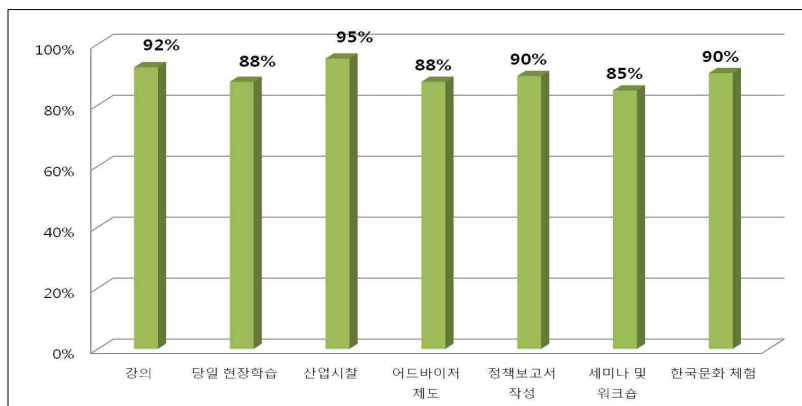
- 교육연수과정을 통해서 습득한 한국의 개발사례가 해당 국가의 국가정책 및 시행에 반영될 가능성과 적합성이 매우 높게 나타남

[그림 5] 국가정책 및 반영 여부



- 교육과정 구성별 학습성과는 산업시찰, 강의, 정책보고서 작성, 한국문화 체험 순으로 높게 나타남

[그림 6] 교육연수과정 구성별 개인 학습효과



3. 정책적 시사점

- 글로벌개발협력센터에서 실시하는 “수요자 중심의 자기주도형” 연구연수의 만족도와 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남에 따라 이러한 교육연수를 발전적으로 지속할 필요가 있음
 - 개발도상국의 국가별 경제, 사회, 인문적 상황을 충실하게 고려한 개발정책 및 제도, 사업 평가체계 등 구체적 사항을 포함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교육연수 실시
 - 성공사례와 함께 실패한 정책사례나 사업추진과정에서 겪은 사회적 갈등사례를 포함하여 실용적 정책경험을 전달
- 단순한 지식과 경험을 전달하기보다는 계획수립, 정책개발, 제도개선 등 실무자(공무원)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개발
 - 산업시찰, 기관방문, 강의,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서 스스로 보고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교육연수에 중점
 - 이 외에도 정책이슈에 대해 국가별 상황을 연수생들이 서로 토론함으로써 각국의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업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을 추가적으로 개발
- 사후관리를 통한 연수생과의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고, 이를 통해 소속기관과의 개발협력을 강화
 - 연수생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소속기관과의 MOU 체결 및 공동연구 추진
 - 교육생의 인적 DB, 리포트 DB를 구축하는 한편, DB를 통해 분석된 유용한 정보를 공공기관 및 민간에 제공하여 우리나라 국익에 기여
- 교육연수 - 정책컨설팅 - 계획수립 - 개발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전략적 교육연수방안을 마련
 - 교육연수는 한국의 경제영토를 확장하는 데 매우 유용한 연결고리 또는 매개이므로 교육기간은 짧지만 중장기적으로 교류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

-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사공호상 소장(hssa@krihs.re.kr, 031-380-0559)
-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송호진 연구원(hjsong@krihs.re.kr, 031-380-0546)